

# 2019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지리 OX 441제

## [유의하실 점]

1. 수능완성의 선지를 추출한 것이므로, 다소 지엽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엽적인 것은 해설지에 (지엽) 이라고 표시해놓았습니다.
2. 저는 스카이에듀의 이승헌 선생님 풀커리 인강 수강생입니다. 선지 추출의 과정에서도 이승헌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 한국지리라는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검토자 분들 과도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배포하면, 제가 선지를 추출한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도 마지막 시기이니만큼 본인의 선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441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전 하나 더 보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제작자

815538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검토자

495790 도희

762906 법과 정치

766370 매운탕대신 지리탕

## 한국지리 OX 1강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아메리카는 표현되어 있지만 오세아니아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2.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3. 서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대략 12시 30분 이후가 된다.
4.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체계화되었다.
5. 산경도는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산지를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의 지형 과정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6.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는 산맥도를 기반으로 그렸다.
7. 천하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조선, 중국, 일본이 모두 표현되어있다.
8. 천하도에는 도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천원지방의 세계관도 반영되어 있다.
9. 동국대지도의 제작에는 축척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다.
10. 조선 전기의 지도는 북부 지방 및 해안 지방의 형태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11.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에 의해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한국지리 2강 OX

1. 기선은 영해 설정의 기준선으로 통상 기선은 연안의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직선 기선은 영해 기점을 이은 직선을 의미한다.
2. 제주도, 울릉도, 독도, 영일만은 통상 기선을 사용한다.
3. 독도는 울릉도·제주도보다 늦게 형성된 경사가 급한 화산섬이다.
4. 독도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5. 북한은 남한보다 청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6. 북한은 남한보다 화력 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국내 자급률이 높다.
7.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이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8. 독도의 수직 상공은 한국의 영공에 해당한다.
9. 독도는 섬 전체가 경관이 아름다워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0. 독도는 주변 해역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11.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12. 마안도는 이어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 한국지리 OX 3 강

1. 송림 변동으로 라오둥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2. 최종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으며 침식기준면은 상승했다.
3. 후빙기 때 최종빙기에 비해 비교적 화학적 풍화 작용이 우세했다.
4. 2 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 산줄기의 연속성이 약해졌다.
5. 한국의 고위평탄면은 여름철 기온이 낮으므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발달에 유리하다.
6. 백두산과 제주도의 정상부는 종 모양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7. 철원의 용암 대지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8. 후빙기에 하천 상류에서 강수량이 많아 하천의 유량이 많아져 침식 작용이 활발하였다.
9. 화강암은 지각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굳어진 암석이므로 잘게 부서진 채로 산출된다.
10. 평안 누층군은 안정된 지층으로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11. 최종빙기는 후빙기보다 대체로 연평균 기온이 높고 연 강수량이 많았다.
12. 북한산의 기반암은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13. 덕유산의 기반암은 제철 산업에도 주로 이용된다.
14. 백두산 천지는 백록담보다 평균 수심이 얕다.
15. 울릉도는 제주도보다 사면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16. 제주도의 용암동굴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해안선을 향해 길게 발달한다.
17. 화성암의 관입암으로는 현무암과 조면암, 분출암으로는 화강암이 있다.
18. 변성암은 전 국토의 약 62.4%를 차지하여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19. 조선누층군에는 얇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분포한다.

20. 산의 해발고도는 백두산>한라산>울릉도 순으로 높다.

## 한국지리 OX 4 강

1. 압록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하천이 황·남해로 유입한다.
2. 한국은 강수량의 계절 차가 커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다.
3. 황·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비교적 유로의 길이가 짧고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여 유역 면적이 넓다.
4. 감입곡류하천의 영향으로 하천 주변 농경지에 염해가 발생한다.
5. 한국의 하천 중 하굿둑이 건설된 곳은 금강, 낙동강, 섬진강이다.
6. 하굿둑 건설로 인해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갯벌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7. 선상지의 선단에서는 하천의 복류로 인해 지표수가 부족하여 밭농사나 과수농사를 짓는다.
8. 하안단구는 과거 하천의 바닥이나 범람원이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 과정에서 하천의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9. 침식 분지는 기온 역전 현상에 따른 안개 발생 빈도가 높다.
10. 배후 습지는 자연 제방에 비해 홍수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다.
11. 삼각주는 작은 하천에서 조차가 클 때 발달하기에 유리하다.
12. <한강의 하계망> 지도(본문 22 쪽 **그림만** 확인)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천의 폭이 넓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구하도를 의미한다.
13. 자유곡류하천은 비가 많이 내려 유량이 많아지면 쉽게 범람이 일어나므로 그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형성된다.
14. 하안단구는 구하도와 달리 과거 하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곳이므로 둥근 자갈과 같은 하천 퇴적물이 쉽게 발견된다.
15. 금강의 일부는 충청 지방과 호남 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16. 하구에서의 주기적인 수위 변동은 섬진강이 금강보다 크다.

17. 배후습지의 토양은 모래의 비율이 높아 투수성이 좋다.
18. 춘천 분지의 충적층 곳곳에는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가 나타난다.
19. '하천 주변에 완충 녹지, 홍수터 등을 포함하여 복원'하는 정책은 빗물의 지표 유출량을 늘린다.
20. 한강은 황해의 큰 조차로 인해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21. 경기, 전북, 경남 중 2014 년을 기준으로 공업용수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다.



## 한국지리 OX 5 강

1. 서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평행해 해안선이 복잡하다.
2.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파랑의 작용이 약하다.
3. 곶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 작용이 활발해 사주, 파식대 등이 발달되어 있다.
4. 겨울철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에 규모가 큰 사주가 발달되어 있다.
5. 간척 사업으로 인해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6. 갯벌은 간조 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만조 시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
7.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대암산 용늪은 범람원의 배후 습지에 해당한다.
8.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사주의 세력이 약화되어 만의 입구가 바다와 통하면서 형성된 호수이다.
9. 석호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주요 용수원이다.
10. 사빈은 해안 사구보다 지하수 저장 기능이 크다.
11. 해식동은 해식에 중 침식과 풍화에 강한 부분에서 잘 형성된다.
12. 파식대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
13. 지리산은 맑은 계곡과 화강암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14. 해안단구의 형성 요인은 해수면 변동뿐이다.
15. 지형도에 호수의 한쪽 부분에 굽은 선의 방축 표시가 있으면 석호를 표현한 것이다.
16. 석회암 풍화토는 성대 토양으로 분류된다.
17. 돌리네는 절리 밀도가 높아 빗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지 않는 부분에서 발달한다.
18. 울릉도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 우데기라는 특수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통가옥도 있다.

19. 우리나라의 석회암은 고생대 후기에 육성층에서 형성된 퇴적암이다.

## 한국지리 OX 6 강

1. 봄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 확장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2. 장마철에는 다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집중 호우가 발생한다.
3. 여름에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로 남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4.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5. 높새바람은 시베리아 해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될 때 불어오는 북동풍이다.
6. 대륙 내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다.
7.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로 인해 발생한다.
8. 제주의 겨울철 일조 기간이 서귀포보다 긴 것은 북동풍과 관련이 있다.
9. 울릉도, 강릉, 대관령의 겨울 강수 비율 비교 : 강릉>대관령>울릉도
10. 서울, 인천, 강릉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인천>강릉>서울
11. 군산, 무주, 거제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거제>군산>무주
12. 대구, 포항, 정읍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포항>정읍>대구
13. 평양, 원산, 청진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원산>청진>평양
14. 개성, 중강진, 신의주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개성>중강진>신의주
15. 강릉, 서울, 춘천의 연교차 비교 : 춘천>서울>강릉
16. 인천, 대관령, 울릉도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울릉도>대관령>인천
17. 춘천, 강릉, 대관령의 연 강수량 비교 : 대관령>춘천>강릉
18. 울릉도, 서울, 강릉의 연 강수량 비교 : 울릉도>서울>강릉

19. 거제, 제주도, 대구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제주도>거제>대구
20. 군산, 대구, 제주도의 연 강수량 비교 : 제주도>군산>대구
21. 정읍, 포항, 군산의 연 강수량 비교 : 정읍>포항>군산
22. 거제, 포항, 제주도의 겨울 강수량 비율 비교 : 거제>제주도>포항
23. 울릉도, 강릉, 포항, 제주, 대관령의 겨울 강수량 비율 비교 : 제주>울릉도>포항>대관령>강릉
24. 백두산, 청진, 원산의 연 강수량 비교 : 원산>백두산>청진
25. 여름에는 대륙성 기단, 겨울에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26. 열섬 현상은 맑은 날 낮에 주로 발생한다.

## 한국지리 OX 7 강

1.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면서 난대림 분포지가 북상하고 있다.
2.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재배 북한계선이 남하하고 있다.
3. 한라산은 백두산보다 냉대림이 나타나는 해발고도가 높다.
4.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에 분포하는 토양은 성대 토양에 속한다.
5. 간척지와 하구 부근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은 염분이 많은 간대 토양이다.
6.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피해액이 많다.
7. 태풍은 중부 지방인 경기와 강원외의 피해액이 많다.
8. 발생 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연 재해는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9.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10. 주로 8~10 월에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이동방향은 진행 속도가 느리며 산불 등의 2 차 피해를 가져온다.
11. 황사와 태풍의 이동 방향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12. 호우는 태풍보다 2007~2016 년 누적 피해액이 크다.
13. 피해액의 비중이 경기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태풍, 호우, 대설 中)
14. 호우와 대설은 주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유발한다.
15. 우리나라는 기온이 식생 분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생대는 해발 고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위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달라진다.

16. 도시 녹지 공간 확대 정책이 널리 시행되면 강수 시 지표로 흐르는 빗물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17. 도시 녹지 공간 확대 정책이 널리 시행되면 도시 지역의 상대 습도가 높아질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산성화된 토양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유기물 유실 등이 원인이다.
19. 우리나라의 회백색토는 적색토보다 주로 고위도 지역에 분포한다.

## 한국지리 OX 8 강

1. 협동 노동이 필요한 벼농사 지역에서는 집촌이 유리하다.
2.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은 촌락은 주로 동족촌을 형성하고 있다.
3.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보다 넓으면 중심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중심지 기능의 종류가 작은 계층의 중심지는 비교적 중심지 수가 적다.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中)
5. 1995년부터 서울이 수위 도시로 최상위 계층을 형성했고, 종주 도시화 현상은 1975년부터 발생했다.
6. 2015년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는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수원이다.
7. 영남권은 100만 명 이상 도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부산, 대구, 울산 등의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8. 호남권에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없다.
9. 배산임수 조건을 갖춘 전통 촌락은 겨울철 차가운 북동 계절풍을 막기에 유리하다.
10. 해안을 따라 전통 취락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용천대에서 생활용수의 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1. 아산시 서천군보다 2015년에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주민이 많았을 것이다.
12. 서천군은 1995년보다 2015년에 주민의 중위 연령이 낮을 것이다.
13.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권역 내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높다.
14.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50만 명 이상 도시군의 인구 비중이 높다.
15. 김해시가 임실군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높을 것이다.
16. 서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이 1975년보다 높다.

## 한국지리 OX 9 강

1. 도시 내부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높다.
2. 도심은 접근성 및 지대, 지가가 낮아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3. 도심에서는 공업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상주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4. 도심의 시가지보다 부도심의 시가지가 형성된 시기가 이른다.
5. 철거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한다.
6.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도시와 주변 지역의 통행량, 인구 이동 등의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다.
7. 서울의 도심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 일대는 법정동의 수가 행정동의 수보다 적다.
8. 주간인구지수가 100 미만으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노원구는 법정동의 수가 행정동의 수보다 적다.
9. 서울은 1970~1980년에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5~2015년에는 인구가 감소했다.
10. 촌락의 성격이 강한 양평은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고양에 비해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적다.
11.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12. 강남구는 서울에서 주간 인구가 가장 많아 주간 인구 지수가 중구보다 높다.
13.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단독 주택 거주자보다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겸업농가 비중이 높다.
14. 도시 내부에서 기능 지역의 분화는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15. 기존 마을 형태를 바꾸지 않는 주민 생활 개선 사업은 철거 재개발과 달리 외부 자본 투입 규모가 크다.



16.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화로 인한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급증한다.

17. 도시화 과정에서 2·3 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 한국지리 OX 10 강

1. 금속 광물과 화석 연료는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2. 북한에 비해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많고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비교적 적다.
3. 1 차 에너지 자원의 공급 비중 순서: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
4. 에너지원별 발전량 순서: 석탄>원자력>천연가스>석유
5. 충남은 천안에 제철소, 보령·태안·당진에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가 위치하여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다.
6. 경북은 울진·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여 전남보다 원자력 공급량이 많다.
7. 천연가스는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소비량이 적다.
8. 조류 발전은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에서만 이루어진다.
9.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권역에 대구광역시가 위치해있다.
10. 강원과 경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원은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고령토, 무연탄, 석회석, 철광석 中)
11. 철광석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주로 오래되고 안정된 시·원생대 지괴에 분포한다.
12. 석탄은 주로 화력 발전 및 제철 공업의 연료로 이용된다.
13. 전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 차 에너지는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14. 우리나라 1 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많다.
15. 수력 발전보다 발전소의 입지 제약이 큰 발전 양식은 상대적으로 제주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16. 1990 년에 비해 2015 년에 신·재생(수력 제외) 에너지의 생산량 비중이 줄어들었다.

17. 강원권, 영남권과 제주권에서 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보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한국지리 OX 11 강

1.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에 비해 농가 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더 낮아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했다.
2. 경북과 제주는 과실 생산량이 많은 데에 비해 전남과 경남은 쌀 생산량이 많다.
3. 근교 농촌은 원교 농촌과 달리 평균 지가가 높으나 노지 재배 면적 비중은 낮다.
4. 자동차와 제철 공업은 시장 지향형 공업이다.
5.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은 운송비에 비해 부가 가치가 큰 공업이다.
6. 맥류는 겨울철이 추운 전북, 경남 등 남부 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7.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이 낮은 전남과 전북은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높다.
8. 도별 논 면적 1, 2 등 : 전남, 충남
9. 도별 전업농가 수 1, 2 등 : 경북, 전남
10. 도별 겸업농가 수 1, 2 등 : 경기, 제주
11. 경기는 전남보다 1 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12. 전자 부품 제조업의 종사당 1 인당 출하액은 충남이 충북보다 많다.
13. 과실은 쌀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넓다.
14.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15. 우리나라 농촌은 1975 년 이후 농가 인구와 농가 수,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16. 경기 남양주시는 충남 예산군보다 농가 당 경지면적이 넓으며,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낮다.
17. 우리나라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출하액은 대기업이 많은 공업의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8.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19. 국외 농업 개발이 실시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다.
20. 채소는 대도시 인근 지역과 벼농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재배 면적 비중이 높다.
21. 시도별 석유 화학 1, 2 등 : 울산, 충남
22. 시도별 자동차 1, 2 등 : 경기, 울산
23. 시도별 전자 1,2,3 등 : 경북, 경기, 경남
24. 시도별 조선 1, 2 등 : 경남, 부산
25.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1, 2 등 : 경기, 경남

## 한국지리 OX 12 강

1. 편의점은 백화점에 비해 상점 간 평균 거리가 가깝고 최소 요구치가 크다.
2. 주요 소매 업체별 사업체 수 : 편의점>무점포소매업>슈퍼마켓>대형마트>백화점
3. 주요 소매 업체별 종사자 수 : 무점포소매업>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백화점
4. 주요 소매 업체별 매출액 : 대형마트>백화점>무점포소매업>편의점>슈퍼마켓
5. 철도는 해운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나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지 못하다.
6. 항공은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

###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수송 분담 비중>

국내수송	여객	7. 도로>철도>지하철>항공>해운
	화물	8. 도로>해운>철도>항공
국제수송	여객	9. 항공>해운
	화물	10. 항공>해운

11. 보험업과 소매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다.
12.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났다.
13.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적은 제주가 가장 적다.
14.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낮으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15. 정기 시장은 동일 장소에서 매일 물품의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다.
16. 상점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보다 클 때 유지된다.
17.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8. 무점포 소매업은 백화점보다 2006년 대비 2014년 성장률 증가 폭이 크다.
19. 병원은 영서 지방의 도시보다 영동 지방의 도시에 더 많이 분포한다. (병원, 의원, 종합 병원 中)
20. 주행비용 증가율 순서 : 철도>해운>도로
21. 항공은 철도보다 평균 운행 속도가 빠르다.
22. 모든 권역은 3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이 2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보다 높다.
23. 호남은 수도권보다 1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이 낮다.

## 한국지리 OX 13 강

1. 상권 지역은 문화권 지역과 달리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2. 강원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에 위치한다.
3. 경주와 상주는 영남 지방의 주요 도시이다.
4. 점이 지대는 문화권, 언어권 등에서 잘 나타난다.
5. 등치선도는 산업별 인구 구조, 작물 별 생산량 등을 나타낼 때 적합하다.
6. 점묘도는 인구 분포나 가축 분포 등 어떤 현상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7. 지역별 인구 밀도는 인구의 이동상황과 달리 유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8. 기능 지역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범위가 변할 수 있다.
9. 광역시는 도보다 전체 지역의 평균 인구 밀도가 높다.
10. 태백산맥의 대관령을 기준으로 춘천, 원주 등의 도시는 영동 지역에 위치해있다.
11. 실내 조사에서는 면담, 촬영,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 한국지리 OX 14 강

1. 북한은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2. 산맥과 바다의 영향으로, 북한의 동해안은 동위도의 서해안보다 겨울철 기온이 낮다.
3. 백두산 일대에 화산 지형이 발달했는데, 그 예로 칼데라 분지인 천지를 들 수 있다.
4. 관북 지방의 전(田)지형 가옥 구조에는 정주간이 나타난다.
5. 북한은 남한에 비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낮다.
6. 함흥, 개성, 원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 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7.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지역이다.
8. 나선 경제특구는 홍콩식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9. 북한의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10. 북한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수력 발전소가 많이 분포한다.
11.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화력 발전이 약 60%, 수력 발전이 약 40%를 차지한다.
12. 북한은 남한보다 감자와 같은 서류의 생산량 비중이 높다.
13.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작물 생산량도 많다.
14. 함경산맥에 있는 산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두산이다.
15. 압록강은 대동강보다 유로가 길다.
16. 북한에서 화력 발전소는 대부분 관북 지방에 위치해있다.
17. 북한에서 옥수수는 주로 쌀의 그루갈이로 재배된다.
18. 감자 전분으로 국수를 뽑아 만든 냉면은 신의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다.

19. 개성 공업 지구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20. 나선 경제특구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 지역이다.

## 한국지리 OX 15 강

1.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시하였다.
2. 신도시 및 위성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서울 인구도 증가하였다.
3. 서울은 2 차 산업 비중 감소와 3 차 산업 비중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다.
4. 인천과 경기도는 주로 업무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가 입지해있다.
5.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해있다.
6. 영동 지방은 영서지방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높다.
7. 영서 지방에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고온 건조한 늦새바람이 불어온다.
8.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의 하천은 유로가 긴 편이다.
9. 한강 중·상류에 하안 단구, 감입 곡류 하천이 발달해있다.
10. 강원 지방은 산지가 많아 경지율이 낮고 밭농사와 목축업이 발달해있다.
11. 춘천과 원주는 첨단 의료 기기 사업이 발달해있다.
12. 2015년 경기도의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13. 서울, 인천, 경기 중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이 가장 많고 인천이 가장 적다.
14. 서울과 인천은 제조업 생산액은 비슷하지만, 1인당 제조업 생산액은 서울이 인천보다 많다.
15. 강원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춘천, 그 다음으로 원주가 많다.
16. 강원 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원주이다.
17. 용암 대지가 발달한 철원과 해안 평야가 발달한 고성 등은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18. 성남시에 비해 평택시의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

19. 2015년 경기도는 서울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20.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 성남, 용인 등에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21. 수도권 정비 계획은 제 1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22. 고위평탄면은 비슷한 위도의 저지대에 비해 무상 기간이 짧다.
23. 평창은 홍천에 비해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이 넓다.
24. 삼척은 강릉에 비해 석회석 생산량이 적다.

## 한국지리 OX 16 강

1. 충청 지방은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연결해주는 곳에 위치해있다.
2. 대전과 청주는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있다.
3. 김제는 나비 축제, 함평은 지평선 축제가 유명하다.
4. 신안 증도, 완도 청산도, 담양은 슬로 시티로 지정되어있다.
5. 낙동강 중·상류에 삼각주가 발달해있다.
6.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높다.
7.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종 모양 화산이나 산 정상은 방패 모양 화산이다,
8. 충청 지방의 아산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공업, 서산은 석유 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9. 영남 지방의 포항은 대구와 달리 섬유 공업이 발달하였다.
10. 전주 한옥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1. 천안은 기업도시로 지정되었다.
12. 전남에서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
13. 경북에서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자동차 산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14. 군산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15. 창녕에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할 수 있다.
16. 울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가 환경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유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7.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인해 제주도의 농경지가 대부분 밭으로 이용된다.
18.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9.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지형이다.

## 한국지리 OX 18강

1.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었다.
2.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한다.
3. 균형 개발 방식은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주로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진다.
4. 불균형 개발 방식은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
5. 1980년대에 지방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서해안 지역을 개발했다.
6. 우리나라의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 수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7. 강원 원주시는 제주 서귀포시와 달리 혁신 도시로 선정 되었다.
8. 혁신 도시란 기업과 협력 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교육·의료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9. 현재, 2018년은 제 2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중이다.
10. 균형 개발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1. 제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실시할 때,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였다.
12.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실시할 때,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 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실시되었다.
13. 1960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의 비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14. 1990년대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이다.

## 실전모의고사 1 회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2. 천하도와 대동여지도에는 모두 중화사상이 나타난다.
3. 최종빙기 시기는 후빙기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낮다.
4. 최종빙기 시기 하천 상류부의 풍화 산물의 공급은 대부분 화학적 풍화 작용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5. 하상계수가 과거에 비해 작아진 이유 중 하나는 하천 상류의 댐 건설이다.
6. 자유곡류하천은 감입곡류하천보다 측방 침식 작용이 우세하다.
7. 갯벌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8. 석호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넓어진다.
9. 인천, 울릉도, 거제의 강수량 순서: 울릉도>거제>인천
10. 인천, 울릉도, 거제의 기온의 연교차 순서: 인천>거제>울릉도
11.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시적 확장으로 인해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12.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 영서 지방에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이 불어온다.
13. 주로 8, 9 월에 피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자연재해의 진행방향은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다.
14.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는 호우보다 대설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15. 도시체계는 도시 간 교통량으로 파악할 수 없다.
16. 남동 임해 지역의 도시는 침상 도시의 성격이 나타난다.
17. 서울의 도심은 주변지역에 비해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18. 제주에서 공급량 비중이 가장 높은 화석 에너지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19. 다른 도(道)에 비해 경기에서 공급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 에너지는 석유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20. 1 차 금속 제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
21. 자동차 제조업의 출하액 1 위 지역은 섬유 제품(의복 제외) 제조업 출하액도 1 위이다. (도(道) 별)
22. 철도는 도로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23. 국내 화물 수송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교통수단(지하철 제외)는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24. 북한은 남한보다 1990 년 광공업 생산액 비중이 높다.
25. 춘천 지역에서 수도권 전철 연결과 지역 경제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26.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소매 업태는 매출액도 가장 높다.
27.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중 재화의 도달 범위는 편의점이 가장 넓다.
28. 호남 지방은 조차가 커서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29. 전주와 순천에 조성되어 있는 민속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30. 제 2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특징은 남동 연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 단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31. 제 3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특징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 실전모의고사 2 회

1. 우리나라에서 하굿둑이 설치된 하천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다.
2. 독도와 달리 마라도는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3.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동쪽이 서쪽보다 이른다.
4. 택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제작 시기가 이른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택리지보다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었다.
6. 고생대 초기의 퇴적암은 얇은 호수 밑에서 형성되었다.
7. 남해안의 적색토는 신생대의 화성암이 풍화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8. 하천의 하류 구간은 상류 구간보다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낮다.
9. 하천의 상류 구간은 하천의 하류보다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
10. 침식 분지에서 화강암 분포 지역은 변성암 분포 지역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11. 사빈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12. 갯벌은 사빈보다 지형 형성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3. 우리나라는 7 월보다 1 월에 대류성 강수의 발생 빈도가 높다.
14. 우리나라는 겨울에 기온의 남북 차가 크다.
15.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풍이 탁월하므로 북서풍의 바람받이 사면은 대체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다.
16.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는 남해안 지역과 한라산의 여름 바람받이 사면인 제주 시,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 등이다.
17. 호우는 장마 전선이 장기간 머무를 때 발생 빈도가 높다.

18. 한파 발생 계절은 호우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계절보다 평균 풍속이 강하다.
19.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20. 주변지역은 도심과 달리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21. 경남과 충남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22.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 중 가장 수입 의존도가 높다.
23.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에 주로 입지한 발전 양식은 일조 시간이 긴 지역에 입지해야 에너지 생산에 유리하다.
24. 경북, 전북, 전남에 주로 입지한 발전 양식은 수력 발전보다 상업적 이용 시기가 이른다.
25.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26.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27.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마을 중 한 곳인 양동 마을이 있다.
28. 창원은 울산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29. 경기, 경북, 전남의 쌀 생산량: 전남>경북>경기
30. 경기, 경북, 전남의 농가 수: 전남>경북>경기
31. 경기, 경북, 전남의 겸업농가 비중: 경북>경기>전남

### 실전모의고사 3 회

1. 영해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내수 안에서는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이 가능하다.
3. 제주도의 오름은 중생대에 관입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4.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분포할 수 있다.
5. 최종빙기 시기는 후빙기 시기에 비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의 길이가 짧다.
6. 후빙기 시기는 최종빙기 시기에 비해 동해의 면적이 좁다.
7. 택리지는 가거지의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을 제시하였다.
8. 갯벌은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 넓게 형성된다.
9. 사주는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10. 무상 기간은 대체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 길다.
11. 부산은 춘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12. 호우는 중부 지방에서 연간 피해액이 많다.
13. 태풍은 바닷물의 온도를 높여 적조 현상을 심화시킨다.
14. 1 차 에너지의 권역별 공급 비중 도표를 볼 때,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는 석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5.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1 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16. 서울의 도심 지역은 부도심 지역보다 출근 시간 대 순 유입 인구가 많을 것이다.
17. 서울의 부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것이다.
18. 도시 체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부산의 동별 지가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대도시권은 대도시와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인 범위로 대체로 통근 가능권과 일치한다.
20. 울산, 전남, 충남의 출하액이 많은 제조업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다.
21. 전자 제조업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에서도 출하액이 가장 많다.
22. 철도는 해운보다 단위 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이 크다.
23. 해운은 도로보다 주행 거리당 운송 시간이 길다.
24. 제주는 경북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낮다.
25. 전남은 경북보다 과실 생산량이 적다.
26.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소매 업태는 상점 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27.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소매 업태는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다.
28. 전남은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
29. 북한은 남한보다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이 많다.
30. 옥수수는 쌀보다 논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31. 충청권 지역 중(충북, 충남, 세종, 대전 中)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다.
32. 충청권 지역 중(충북, 충남, 세종, 대전 中)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이다.
33. 전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마을이 위치해있다.

## 실전모의고사 4 회

1. 백두산 정상부에서 대관령 일대까지 산줄기가 불연속적으로 뻗어 있다.
2. 백두산 위의 큰 못은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호수이다.
3. 나리분지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4. 철원 용암대지의 기반암은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5. 남한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한강,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은 낙동강이다.
6.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하구에 하굿둑이 설치되어 있다.
7. 독도는 마라도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낮다.
8. 영종도와 마라도는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9. 마라도와 달리 독도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0.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이다.
11. 석호의 물은 주로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12. 거제, 강릉, 대구의 연 강수량: 강릉>거제>대구
13. 거제, 강릉, 대구의 최난월 평균 기온: 대구>거제>강릉
14. 대동강 하류 지역은 지역과 풍향의 영향으로 다우지를 이룬다.
15. 압록강은 성천강보다 유로가 길고 유역 면적이 넓다.
16.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석회 동굴은 영월군에 위치해있다.
17. 연천군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DMZ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8. 부산이 양평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므로 무상 기간이 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석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 LNG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道)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있다.
21. 인천은 서울보다 총인구 대비 2 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다.
22. 과수 재배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경북 순이다.
23. 맥류는 경기, 강원 등 중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한다.
24. 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25. 강원, 충북, 경기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26. 철도는 도로보다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27. 주변지역은 부도심보다 출근 시간대의 순 유입 인구가 많다.
28. 부도심은 중간 지역에 비해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29.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은 섬유제품(의복제외) 제조업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다.
30. 섬유제품(의복제외) 제조업은 자동차 제조업보다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늦다.
31. 서울, 충남, 제주, 울산 중 2 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은 충남이 가장 높다.
32. 충남은 제주보다 총인구가 많다.

# 빠른 답 확인

1. XXO OXX OOX XO
  2. OXX XOO XOX OXO
  3. XXO XOO XOX XXX XXO XXX OO
  4. XOX XXO XOO XXX OXO XXO XOX
  5. XXX XXX XXX XXX XXX XXX X
  6. OOX XXO OXX XOX OXO XXX OOX  
XXO XX
  7. OXO XXO XXO XOX XXX XOO O
  8. OXO XXX OXX OOX XXO X
  9. OXX XXO XOX OOX ?OX XO
  10. XXX OXO XXX XOO XXX XO
  11. XXO XXX OOO XOO XOX OOO XOX  
OXX O
  12. XOX XXO XOO XXO OXX XXO XXO  
OX
  13. XXO OXO XOO XX
  14. OXX OXX XXX XXO XXO XXX OX
  15. OXO XXO OXO OXO XXX OOX OOX  
OOX
  16. OXX OXO XOX XXO XXO XOX O
  18. OXO OXX XXX OOX XO
- 실전 1.  
XXO XOO OXX OOX OXX XOO XOO  
XXO OXX OXX X
- 실전 2.  
OXO XXX XXX OXO XOO XOO OXX XXX  
OXX XOX X
- 실전 3.  
OXX XXX OXO OOO XXX XOX OXX XOX  
OXO XXX OXX
- 실전 4.  
XXO XXX XXX XXX OXO XXO XXO XXO  
XOX OXX XO



# 해설

## 1. 국토 인식과 우리나라의 위치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아메리카는 표현되어 있지만 오세아니아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고,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등 신대륙은 인식하지 못했다.

2.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수리적 위치로 인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나타는 것은 대륙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 등이다.

3. 서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대략 12시 30분 이후가 된다.

동경 135°는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고 동해상을 지나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과 정오는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대략 12시 30분 이후가 된다.

4.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체계화되었다.

5. 산경도는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산지를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의 지형 과정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산지를 인식하는 것은 산맥도이다. 산맥도는 표시된 산맥이 실제 산줄기의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하천 유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6.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는 산맥도를 기반으로 그렸다.

7. 천하도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8. 천하도에는 도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천원지방의 세계관도 반영되어 있다.

9. 동국대지도의 제작에는 축척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다.

동국대지도는 정상기가 그린 동국지도를 원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축척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10. 조선 전기의 지도는 북부 지방 및 해안 지방의 형태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지도는 북부 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현하지 못한다.

11.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에 의해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2. 국토 통일과 우리나라 영토

1. 기선은 영해 설정의 기준선으로 통상 기선은 연안의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직선 기선은 영해 기점을 이은 직선을 의미한다.

2. 제주도, 울릉도, 독도, 영일만은 통상 기선을 사용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 기선을 사용하고, 영일만은 직선 기선을 사용한다.

3. 독도는 울릉도·제주도보다 늦게 형성된 경사가 급한 화산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4. 독도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독도에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5. 북한은 남한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6. 북한은 남한보다 화력 발전에 이용되는 연료의 국내 자급률이 높다.

7.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이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연안국이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에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

8. 독도의 수직 상공은 한국의 영공에 해당한다.

9. 독도는 섬 전체가 경관이 아름다워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독도는 다양한 모양의 바위섬이 섬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지만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10. 독도는 주변 해역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11.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

12. 마안도는 이어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마안도에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므로 비열이 작은 대륙의 특성이 반영되어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 3.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1. 송림 변동으로 라오동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송림 변동으로 라오동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2. 최종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으며 침식기준면은 상승했다.

최종빙기 때 해수면과 침식 기준면 둘 다 하강했다.

3. 후빙기 때 최종빙기에 비해 비교적 화학적 풍화 작용이 우세했다.

4. 2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 산출기의 연속성이 약해졌다.

2차 산맥은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5. 한국의 고위평탄면은 여름철 기온이 낮으므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발달에 유리하다.

6. 백두산과 제주도의 정상부는 종 모양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7. 철원의 용암 대지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논농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철원의 한탄강 주변 지역에서는 수리(水利) 시설을 이용하여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8. 후빙기에 하천 상류에서 강수량이 많아 하천의 유량이 많아져 침식 작용이 활발하였다.

9. 화강암은 지각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굳어진 암석이므로 잘게 부서진 채로 산출된다. (지엽)

화강암은 지각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굳어진 암석이므로 덩어리로 산출된다.

10. 평안 누층군은 안정된 지층으로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지질 계통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류이다.

11. 최종빙기는 후빙기보다 대체로 연평균 기온이 높고 연 강수량이 많았다.

후빙기는 최종빙기에 비해 기후가 온난 습윤하다.

12. 북한산의 기반암은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북한산의 주된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다.

13. 덕유산의 기반암은 제철 산업에도 주로 이용된다.

덕유산의 기반암은 변성암이다.

14. 백두산 천지는 백록담보다 평균 수심이 얕다. (지엽)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호이고, 백록담은 화구호이다. 규모가 큰 칼데라호가 화구호보다 면적이 넓고 수심이 깊다.

15. 울릉도는 제주도보다 사면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종상 화산인 울릉도가 순상 화산체인 한라산보다 사면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16. 제주도의 용암동굴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해안선을 향해 길게 발달한다. (지엽)

용암동굴은 용암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된다. 따라서 용암동굴은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해안선을 향해 길게 발달한다.

17. 화성암의 관입암으로는 현무암과 조면암, 분출암으로는 화강암이 있다.

관입암으로는 화강암, 분출암으로는 현무암과 조면암이 있다.

18. 변성암은 전 국토의 약 62.4%를 차지하여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지엽)

전 국토의 약 42.6%를 차지한다.

19. 조선누층군에는 얇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분포한다.

20. 산의 해발고도는 백두산>한라산>울릉도 순으로 높다.

#### 4. 하천과 평야 지형

1. 압록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하천이 황·남해로 유입한다.

두만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하천이 황·남해로 유입한다.

2. 한국은 강수량의 계절 차가 커서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다.

3. 황·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비교적 유로의 길이가 짧고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여 유역면적이 넓다.

황·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비교적 유로의 길이가 길고 하상의 평균 경사가 완만하여 유역면적이 넓다.

4. 감입곡류하천의 영향으로 하천 주변 농경지에 염해가 발생한다.

하천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조하천이다.

5. 한국의 하천 중 하굿둑이 건설된 곳은 금강, 낙동강, 섬진강이다.

한국의 하천 중 하굿둑이 건설된 것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다.

6. 하굿둑 건설로 인해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갯벌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7. 선상지의 선단에서는 하천의 복류로 인해 지표수가 부족하여 발농사나 과수농사를 짓는다.

선단이 아니라 선양이다. 선단에서는 용천이 발달하여 논농사를 짓고 취락이 입지해있다.

8. 하안단구는 과거 하천의 바닥이나 범람원이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 하강 과정에서 하천의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9. 침식 분지는 기온 역전 현상에 따른 안개 발생 빈도가 높다.

10. 배후 습지는 자연 제방에 비해 홍수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다.

배후습지는 자연 제방보다 고도가 낮아 홍수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

11. 삼각주는 작은 하천에서 조차가 클 때 발달하기에 유리하다.

삼각주는 큰 하천에서 조차가 작을 때 발달한다.

12. <한강의 하계망> 지도(본문 22 쪽 그림만 확인)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천의 폭이 넓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구하도를 의미한다. (지엽)

이는 물이 정체되어 있는 호수를 의미하는데, 댐 건설로 인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13. 자유곡류하천은 비가 많이 내려 유량이 많아지면 쉽게 범람이 일어나므로 그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형성된다.

14. 하안단구는 구하도와 달리 과거 하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곳이므로 둥근 자갈과 같은 하천의 퇴적물이 쉽게 발견된다.

구하도와 하안단구는 둘 다 과거 하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곳이므로 둥근 자갈과 같은 하천의 퇴적물이 쉽게 발견된다.

15. 금강의 일부는 충청 지방과 호남 지방의 경계를 이룬다.

16. 하구에서의 주기적인 수위 변동은 섬진강이 금강보다 크다.

하구에서의 주기적인 수위 변동은 황해로 유입되는 금강이 남해로 유입되는 섬진강보다 크다.

17. 배후습지의 토양은 모래의 비율이 높아 투수성이 좋다.

자연 제방의 토양에 모래 퇴적물이 많아 배수가 양호하다.

18. 춘천 분지의 충적층 곳곳에는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가 나타난다.

19. '하천 주변에 완충 녹지, 홍수터 등을 포함하여 복원'하는 정책은 빗물의 지표 유출량을 늘린다.

확대된 녹지 및 습지로 인해 빗물의 지표 유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20. 한강은 황해의 큰 조차로 인해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21. 경기, 전북, 경남 중 2014년을 기준으로 공업용수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다. (지엽)

공업용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이다. 경기는 세 지역 중 생활용수 소비량이 가장 많다.

## 5. 해안 지형 및 생태환경으로서의 지형

1. 서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평행해 해안선이 복잡하다.

서·남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하여 해안선이 복잡하다.

2.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서 파랑의 작용이 약하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랑의 작용이 강하다.

3.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침식 작용이 활발해 사주, 파식대 등이 발달되어 있다.

곳은 해식애, 파식대 등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4. 겨울철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에 규모가 큰 사주가 발달되어 있다.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에 규모가 큰 사구가 발달되어 있다.

5. 간척 사업으로 인해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간척 사업 후 해안선의 길이는 짧아지나 영해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6. 갯벌은 간조 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만조 시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

갯벌은 만조 시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시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다.

7.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대암산 용늪은 범람원의 배후 습지에 해당한다. (지엽)

대암산 용늪은 산지 습지이다.

8.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사주의 세력이 약화되어 만의 입구가 바다와 통하면서 형성된 호수이다.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여 만들어진 호수이다.

9. 석호의 물은 주변 농경지의 주요 용수원이다.

호수의 물에 염분이 섞여 있으므로 농업용수로 이용되기는 어렵다.

10. 사빈은 해안 사구보다 지하수 저장 기능이 크다.

사빈은 지하수 저장 기능이 거의 없다.

11. 해식동은 해식애 중 침식과 풍화에 강한 부분에서 잘 형성된다.

해식동은 해식애 중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한 부분이 침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이다.

12. 파식대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

파식대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파랑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다.

13. 지리산은 맑은 계곡과 화강암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지리산의 기반암은 변성암이다.

14. 해안단구의 형성 요인은 해수면 변동뿐이다.

해안 단구는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변동 등에 의해 형성된다.

15. 지형도에 호수의 한쪽 부분에 굽은 선의 방죽 표시가 있으면 석호를 표현한 것이다.

굽은 선의 방죽 표시는 저수지를 나타낸다.

16. 석회암 풍화토는 성대 토양으로 분류된다.

돌리네에는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한다. 이처럼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된 토양을 간대 토양이라고 한다.

17. 돌리네는 절리 밀도가 높아 빗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지 않는 부분에서 발달한다. (지엽)

돌리네는 절리 밀도가 높아 빗물이 지하로 잘 스며드는 부분에서 발달한다.

18. 울릉도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 우데기라는 특수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통가옥도 있다.

우데기의 설치 이유는 겨울의 많은 적설량 때문이다.

19. 우리나라의 석회암은 고생대 후기에 육성층에서 형성된 퇴적암이다.

우리나라의 석회암은 고생대 전기에 해성층에서 형성된 퇴적암이다.



## 6. 기후와 주민 생활

1. 봄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 확장으로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2. 장마철에는 다습한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집중 호우가 발생한다.

3. 여름에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로 남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여름은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로 남서·남동 계절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4.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울릉도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5. 늦새바람은 시베리아 해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될 때 불어오는 북동풍이다.

늦새바람은 늦봄 ~ 초여름에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될 때 불어오는 북동풍이다.

6. 대륙 내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탁월하다.

7. 해륙풍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로 인해 발생한다.

8. 제주의 겨울철 일조 기간이 서귀포보다 긴 것은 북동풍과 관련이 있다.

제주의 겨울철 일조 시간이 서귀포보다 짧은 것은 북서풍과 관련이 있다. 북서풍의 바람받이에 위치한 제주는 흐리고 강수가 발생하는 날이 많이 일조시간이 짧다.

9. 울릉도, 강릉, 대관령의 겨울 강수 비율 비교 : 강릉>대관령>울릉도

울릉도>강릉>대관령

10. 서울, 인천, 강릉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인천>강릉>서울

강릉>인천>서울

11. 군산, 무주, 거제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거제>군산>무주

12. 대구, 포항, 정읍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포항>정읍>대구

포항>대구>정읍

13. 평양, 원산, 청진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원산>청진>평양

14. 개성, 중강진, 신의주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개성>중강진>신의주

개성>신의주>중강진

15. 강릉, 서울, 춘천의 연교차 비교 : 춘천>서울>강릉

춘천>서울>강릉

16. 인천, 대관령, 울릉도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울릉도>대관령>인천

울릉도>인천>대관령

17. 춘천, 강릉, 대관령의 연 강수량 비교 : 대관령>춘천>강릉

대관령>강릉>춘천

18. 울릉도, 서울, 강릉의 연 강수량 비교 : 울릉도>서울>강릉

강릉>서울>울릉도

19. 거제, 제주도, 대구의 최한월 평균 기온 비교 : 제주도>거제>대구

20. 군산, 대구, 제주도의 연 강수량 비교 : 제주도>군산>대구

제주도>군산>대구

21. 정읍, 포항, 군산의 연 강수량 비교 : 정읍>포항>군산

정읍>군산>포항

22. 거제, 포항, 제주도의 겨울 강수량 비율 비교 : 거제>제주도>포항

제주도-포항>거제

23. 울릉도, 강릉, 포항, 제주, 대관령의 겨울 강수량 비율 비교 : 제주>울릉도>포항>대관령>강릉

울>강릉>포항-제주>대관령

24. 백두산, 청진, 원산의 연 강수량 비교 : 원산>백두산>청진

25. 여름에는 대륙성 기단, 겨울에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여름에는 해양성 기단, 겨울에는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26. 열섬 현상은 맑은 날 낮에 주로 발생한다.

열섬 현상은 주로 밤에 발생한다.

## 7.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및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

1.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면서 난대림 분포지가 북상하고 있다.

2.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재배 북한계선이 남하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 북한계선은 북상한다.

3. 한라산은 백두산보다 냉대림이 나타나는 해발고도가 높다.

4.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에 분포하는 토양은 성대 토양에 속한다.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에는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한다. 석회암 풍화토는 간대 토양에 속한다. 간대 토양은 주로 모암의 영향을 받고, 성대 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는다.

5. 간척지와 하구 부근에 주로 분포하는 토양은 염분이 많은 간대 토양이다.

염류토는 미성숙토이다.

6.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피해액이 많다.

7. 태풍은 중부 지방인 경기와 강원 지역의 피해액이 많다.

태풍은 남부 지방인 전남, 경남, 전북에서 피해액이 많다.

8. 발생 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연 재해는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생 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연 재해는 폭염이다. 폭염은 장마 후 발생하는 매우 심한 더위이다. 산불의 주된 원인은 가뭄이다.

9.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 설악산의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단풍 절정 시기를 봄꽃 개화 시기와 착각하지 말자. 단풍 절정 시기는 기온이 상승할수록 늦어지나, 봄꽃 개화 시기는 기온이 상승할수록 빨라질 것이다.

10. 주로 8~10월에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이동방향은 진행 속도가 느리며 산불 등의 2차 피해를 가져온다.

주로 8~10월에 발생하는 기상 현상은 태풍이다. 진행 속도가 느리며 산불 등의 2차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가뭄에 대한 설명이다.

11. 황사와 태풍의 이동 방향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12. 호우는 태풍보다 2007~2016년 누적 피해액이 크다. (지엽)

2007~2016년 누적 피해액: 태풍>호우>대설

13. 피해액의 비중이 경기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태풍, 호우, 대설 中)

경기에서 피해액의 비중이 가장 큰 자연재해는 호우이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은 대설이다.

**14. 호우와 대설은 주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유발한다.**

호우와 대설은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이므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15. 우리나라는 기온이 식생 분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생대는 해발 고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위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달라진다. (지엽)**

식생대는 위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해발고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달라진다.

**16. 도시 녹지 공간 확대 정책이 널리 시행되면 강수 시 지표로 흐르는 빗물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녹화 사업 시행 후 땅속으로 흡수하는 빗물의 양이 많아져 지표로 유출되는 양은 줄어든다.

**17. 도시 녹지 공간 확대 정책이 널리 시행되면 도시 지역의 상대 습도가 높아질 것이다.**

**18. 우리나라의 산성화된 토양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유기물 유실 등이 원인이다.**

**19. 우리나라의 회백색토는 적색토보다 주로 고위도 지역에 분포한다.**

## 8. 촌락과 정주 체계

1. 협동 노동이 필요한 벼농사 지역에서는 집촌이 유리하다.

2.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은 촌락은 주로 동족촌을 형성하고 있다.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은 촌락은 산촌이다. 산촌이 아닌 집촌이 주로 동족촌을 형성하고 있다.

3.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보다 넓으면 중심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중심지 기능의 종류가 작은 계층의 중심지는 비교적 중심지 수가 적다.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中)

중심지 기능의 종류가 작은 계층의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이다. 고차 중심지보다 저차 중심지의 수가 비교적 많다.

5. 1995년부터 서울이 수위 도시로 최상위 계층을 형성했고, 종주 도시화 현상은 1975년부터 발생했다. (지엽)

1975년, 1995년, 2015년 세 시기 동안 서울이 수위 도시로 최상위 계층을 형성하였고 종주 도시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6. 2015년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는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수원이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

7. 영남권은 100만 명 이상 도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부산, 대구, 울산 등의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8. 호남권에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없다.

전북의 전주시에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only)

9. 배산임수 조건을 갖춘 전통 촌락은 겨울철 차가운 북동 계절풍을 막기에 유리하다.

겨울철 북서 계절풍을 막기에 유리하다.

10. 해안을 따라 전통 취락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용천대에서 생활용수의 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1. 아산시는 서천군보다 2015년에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주민이 많았을 것이다.

12. 서천군은 1995년보다 2015년에 주민의 중위 연령이 낮을 것이다. (지엽)

서천군(郡)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郡)들은 1975년보다 2015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였으므로 주민의 중위 연령이 높을 것이다.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13.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권역 내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높다.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촌락 지역에 속하는 군(郡) 지역군의 인구 비중이 높으므로 권역 내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낮다.

14.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50 만 명 이상 도시군의 인구 비중이 높다.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50 만 명 이상 도시군의 인구 비중이 낮다.

15. 김해시가 임실군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높을 것이다.

16. 서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이 1975 년보다 높다.

2015 년은 1975 년에 비해 총인구가 약 1.5 배 증가하고 서울의 인구도 증가하였지만, 서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 년 19.9%에서 2015 년 19,4%로 낮아졌다.

## 9.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 및 여가 공간

1. 도시 내부의 중심에 위치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높다.

2. 도심은 접근성 및 지대, 지가가 낮아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도심은 접근성 및 지대, 지가가 높아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3. 도심에서는 공업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상주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업기능이 아니라 주거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인해 상주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4. 도심의 시가지보다 부도심의 시가지가 형성된 시기가 이른다.

도심의 시가지가 형성된 시기가 더 이른다.

5. 철거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한다.

철거 재개발은 노후화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것이고,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것이다.

6.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도시와 주변 지역의 통행량, 인구 이동 등의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다.

7. 서울의 도심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 일대는 법정동의 수가 행정동의 수보다 적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 중구와 종로구는 법정동의 수가 행정동의 수보다 많다.

8. 주간인구지수가 100 미만으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노원구는 법정동의 수가 행정동의 수보다 적다.

9. 서울은 1970~1980년에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5~2015년에는 인구가 감소했다. (지엽)

1970~1980년에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5~2015년에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10. 촌락의 성격이 강한 양평은 서울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고양에 비해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적다.

11.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12. 강남구는 서울에서 주간 인구가 가장 많아 주간 인구 지수가 중구보다 높다. (지엽)

강남구는 서울에서 주간 인구가 가장 많지만 상주인구도 많아 주간 인구 지수가 188.0으로 중구보다는 낮다.

13.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단독 주택 거주자보다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겸업농가 비중이 높다.

ex) 성남(아파트 거주자>단독 주택 거주자), 가평(아파트 거주자<단독 주택 거주자)

14. 도시 내부에서 기능 지역의 분화는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

15. 기존 마을 형태를 바꾸지 않는 주민 생활 개선 사업은 철거 재개발과 달리 외부 자본 투입 규모가 크다.

철거 재개발보다 외부 자본 투입 규모가 작다.

16.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산업화로 인한 이촌 향도 현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급증한다. (지엽)

도시화 과정의 가속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매우 낮은 단계라는 것이다.

17. 도시화 과정에서 2·3 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 10. 자원의 의미와 특성

1. 금속 광물과 화석 연료는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금속 광물은 화석 연료와 달리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이다.

2. 북한에 비해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많고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비교적 적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고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비교적 풍부하다.

3. 1차 에너지 자원의 공급 비중 순서: 석탄>석유>천연가스>원자력>수력

석유>석탄>천연가스>원자력>수력

4. 에너지원별 발전량 순서: 석탄>원자력>천연가스>석유

5. 충남은 천안에 제철소, 보령·태안·당진에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가 위치하여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다.

충남은 당진에 제철소가 위치해 있다.

6. 경북은 울진·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여 전남보다 원자력 공급량이 많다.

7. 천연가스는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소비량이 적다.

천연가스는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소비량이 많다.

8. 조류 발전은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에서만 이루어진다.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을 헛갈리지 말자.

9.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권역에 대구광역시가 위치해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권역은 호남이다. 대구광역시는 영남권에 위치해있다.

10. 강원과 경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원은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고령토, 무연탄, 석회석, 철광석 中)

강원과 경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고령토로, 고령토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11. 철광석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주로 오래되고 안정된 시·원생대 지괴에 분포한다.

12. 석탄은 주로 화력 발전 및 제철 공업의 연료로 이용된다.

13. 전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차 에너지는 수송용보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헛갈리지 말자. 석유도 다른 1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산업 부문에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1차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석유를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14.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많다.

4 번 문제 참고

**15. 수력 발전보다 발전소의 입지 제약이 큰 발전 양식은 상대적으로 제주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수력 발전보다 발전소의 입지 제약이 큰 발전 양식은 원자력 발전소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제주도에 위치해있지 않다.

**16. 1990 년에 비해 2015 년에 신·재생(수력 제외) 에너지의 생산량 비중이 줄어들었다.**

신·재생(수력 제외) 에너지의 생산량 비중은 2015 년에 크게 늘어났다.

**17. 강원권, 영남권과 제주권에서 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보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영남권과 제주권에서 주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에너지이다. 풍력 에너지는 태양광보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11. 농업 및 공업의 변화

1.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에 비해 농가 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더 낮아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했다. (지업)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에 비해 농가 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더 커서 농가당 경기 면적이 증가했다.

2. 경북과 제주는 과실 생산량이 많은 데에 비해 전남과 경남은 쌀 생산량이 많다.

경북과 제주는 과실 생산량이 많은 데에 비해 전남과 경남은 보리 생산량이 많다.

3. 근교 농촌은 원교 농촌과 달리 평균 지가가 높으나 노지 재배 면적 비중은 낮다.

4. 자동차와 제철 공업은 시장 지향형 공업이다.

시장 지향형 공업은 소비자와 잦은 접촉을 필요로 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을 말한다. 자동차는 집적 지향형, 제철은 적환지 지향형 공업에 해당한다.

5.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은 운송비에 비해 부가 가치가 큰 공업이다.

운송비에 비해 부가 가치가 큰 공업은 입지 자유형 공업이다.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은 집적 지향형 공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6. 맥류는 겨울철이 추운 전북, 경남 등 남부 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맥류는 겨울철이 온화한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남부 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7.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이 낮은 전남과 전북은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높다.

8. 도별 논 면적 1, 2 등 : 전남, 충남

9. 도별 전업 농가 수 1, 2 등 : 경북, 전남

10. 도별 겸업 농가 수 1, 2 등 : 경기, 제주

도별 겸업 농가 수 1 등은 경기, 2 등은 경북이다. 단, 도별 겸업 농가 비율 1 등은 경기, 2 등은 제주이다.

11. 경기는 전남보다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12. 전자 부품 제조업의 종사당 1인당 출하액은 충남이 충북보다 많다.

13. 과실은 쌀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넓다.

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이다.

14.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15. 우리나라 농촌은 1975년 이후 농가 인구와 농가 수,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했다.

농촌 내 노년층 인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16. 경기 남양주시는 충남 예산군보다 농가 당 경지면적이 넓으며,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낮다.

경기 남양주시는 충남 예산군보다 농가 당 경지면적이 좁으며, 식량 작물 재배 비중이 낮다.

17. 우리나라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출하액은 대기업이 많은 공업의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8.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수완 해설 25p 7번 문제)

19. 국외 농업 개발이 실시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든다. (지엽)

국외 농업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20. 채소는 대도시 인근 지역과 벼농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재배 면적 비중이 높다.

21. 시도별 석유 화학 1, 2 등 : 울산, 충남

울산, 전남

22. 시도별 자동차 1, 2 등 : 경기, 울산

23. 시도별 전자 1,2,3 등 : 경북, 경기, 경남

경기, 경북, 충남

24. 시도별 조선 1, 2 등 : 경남, 부산

경남, 울산

25.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1, 2 등 : 경기, 경남

## 12. 교통·통신의 발달과 소비 공간의 변화

1. 편의점은 백화점에 비해 상점 간 평균 거리가 가깝고 최소 요구치가 크다.

편의점은 백화점에 비해 상점 간 평균 거리가 가깝고 최소 요구치가 작다.

2. 주요 소매 업체별 사업체 수 : 편의점>무점포소매업>슈퍼마켓>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무점포소매업>슈퍼마켓>대형마트>백화점

3. 주요 소매 업체별 종사자 수 : 무점포소매업>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백화점

무점포소매업>편의점>슈퍼마켓>대형마트>백화점

4. 주요 소매 업체별 매출액 : 대형마트>백화점>무점포소매업>편의점>슈퍼마켓

대형마트>무점포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백화점

5. 철도는 해운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나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지 못하다.

철도는 해운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고 정시성과 안정성 또한 우수하다.

6. 항공은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수송 분담 비중>

7, 도로>지하철>철도>항공>해운

8, 도로>해운>철도>항공

9, 항공>해운

10. 해운>항공

11. 보험업과 소매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다.

보험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나 소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다.

12.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 현상이 나타났다.

13.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적은 제주가 가장 적다.

14.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낮으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낮은 편이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이다.

15. 정기 시장은 동일 장소에서 매일 물품의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진다.

정기 시장과 상설 시장은 다르다.

16. 상점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클 때 유지된다.

상점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을 때 유지된다.

17.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18. 무점포 소매업은 백화점보다 2006년 대비 2014년 성장을 증가 폭이 크다.

19. 병원은 영서 지방의 도시보다 영동 지방의 도시에 더 많이 분포한다. (병원, 의원, 종합 병원 中)

병원은 영서 지방에 위치한 춘천시, 원주시에 더 많이 분포한다.

20. 주행비용 증가율 순서 : 철도>해운>도로 (지업)

도로>철도>해운

21. 항공은 철도보다 평균 운행 속도가 빠르다.

22. 모든 권역은 3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이 2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보다 높다.

23. 호남은 수도권보다 1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이 낮다.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1차 산업 부가 가치 비중이 높다.

## 13. 지역과 지리 정보

1. 상권 지역은 문화권 지역과 달리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상권 지역은 기능 지역에 해당하고, 문화권 지역은 동질 지역에 해당한다. 기능 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지역이고, 동질 지역은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범위이다.

2. 강원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에 위치한다.

황해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에 위치한다

3. 경주와 상주는 영남 지방의 주요 도시이다.

4. 점이 지대는 문화권, 언어권 등에서 잘 나타난다.

5. 등치선도는 산업별 인구 구조, 작물 별 생산량 등을 나타낼 때 적합하다.

산업별 인구 구조, 작물별 생산량 - 도형 표현도

6. 점묘도는 인구 분포나 가축 분포 등 어떤 현상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7. 지역별 인구 밀도는 인구의 이동상황과 달리 유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별 인구 밀도 - 단계 구분도, 인구의 이동 상황 - 유선도

8. 기능 지역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범위가 변할 수 있다.

9. 광역시는 도보다 전체 지역의 평균 인구 밀도가 높다.

10. 태백산맥의 대관령을 기준으로 춘천, 원주 등의 도시는 영동 지역에 위치해있다.

춘천, 원주 등은 대관령 서쪽에 위치하여 영서 지방에 해당한다. 속초, 강릉, 동해 등이 영동 지방에 해당한다.

11. 실내 조사에서는 면담, 촬영,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면담, 촬영, 관찰 등은 야외 조사 방법이다.

## 14. 북한의 지리적 특성

1. 북한은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2. 산맥과 바다의 영향으로, 북한의 동해안은 동위도의 서해안보다 겨울철 기온이 낮다.

산맥과 바다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동위도의 서해안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다.

3. 백두산 일대에 화산 지형이 발달했는데, 그 예로 칼데라 분지인 천지를 들 수 있다.

천지는 칼데라분지가 아닌 칼데라호이다.

4. 관북 지방의 전(田)자형 가옥 구조에는 정주간이 나타난다.

5. 북한은 남한에 비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낮다.

북한은 산지가 많아 수력 발전에 유리하므로, 남한에 비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

6. 함흥, 개성, 원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 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지엽)

함흥, 원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 도시로 성장했으나 개성이 아닌 청진이 들어가야 한다.

7.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유엔 개발 계획 (UNDP)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지역이다.

신의주가 아닌 나선 경제특구이다.

8. 나선 경제특구는 홍콩식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선이 아닌 신의주이다.

9.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한에서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므로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10. 북한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수력 발전소가 많이 분포한다.

수력이 아닌 화력 발전소가 분포하고 있다.

11.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화력 발전이 약 60%, 수력 발전이 약 40%를 차지한다. (지엽)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수력 발전이 약 60%, 화력 발전이 약 40%를 차지한다.

12. 북한은 남한보다 감자와 같은 서류의 생산량 비중이 높다.

13.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작물 생산량도 많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지만 식량 작물 생산량은 적다.

14. 함경산맥에 있는 산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마천령 산맥에 위치해 있다.

15. 압록강은 대동강보다 유로가 길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압록강이다.

16. 북한에서 화력 발전소는 대부분 관북 지방에 위치해있다.

화력 발전소는 전력 소비가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17. 북한에서 옥수수는 주로 쌀의 그루갈이로 재배된다.

북한에서 그루갈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8. 감자 전분으로 국수를 뽑아 만든 냉면은 신의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다.

신의주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 찹쌀 순대이다. 감자 전분으로 국수를 뽑아 만든 냉면은 함흥의 대표 음식이다.

19. 개성 공업 지구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20. 나선 경제특구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 지역이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방 지역은 금강산 관광 특구이다.



## 15. 수도권과 강원도

1.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시하였다.

2. 신도시 및 위성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서울 인구도 증가하였다.

신도시 및 위성 도시가 성장으로 서울 인구가 감소했다.

3. 서울은 2차 산업 비중 감소와 3차 산업 비중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다.

4. 인천과 경기도는 주로 업무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가 입지해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주로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이 입지해있다.

5.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해있다. (지업)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해있다.

6. 영동 지방은 영서지방에 비해 겨울철 기온이 높다.

7. 영서 지방에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고온 건조한 늦새바람이 불어온다.

8.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의 하천은 유로가 긴 편이다.

영동 지방에 비해 영서 지방의 하천은 비교적 하천의 유로가 길다.

9. 한강 중·상류에 하안 단구, 감입 곡류 하천이 발달해있다.

10.. 강원 지방은 산지가 많아 경지율이 낮고 밭농사와 목축업이 발달해있다.

11. 춘천과 원주는 첨단 의료 기기 사업이 발달해있다.

춘천은 바이오산업이, 원주는 첨단 의료 기기 관련 산업이 발달해있다.

12. 2015년 경기도의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 서울, 인천, 경기 중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이 가장 많고 인천이 가장 적다.

지역 내 총생산 순서 : 경기 서울 인천

14. 서울과 인천은 제조업 생산액은 비슷하지만, 1인당 제조업 생산액은 서울이 인천보다 많다.

서울과 인천은 제조업 생산액은 비슷하지만, 1인당 제조업 생산액은 인천이 서울보다 많다.

15. 강원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춘천, 그 다음으로 원주가 많다. (지업)

강원 지방에서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원주, 춘천, 강릉이다. 원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도청이 있는 춘천이 많다.

16. 강원 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원주이다.

17. 용암 대지가 발달한 철원과 해안 평야가 발달한 고성 등은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18. 성남시에 비해 평택시의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많다.

성남은 1기 신도시로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가 평택시에 비해 많다.

19. 2015년 경기도는 서울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20.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 성남, 용인 등에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21. 수도권 정비 계획은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지엽)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시행으로 나타난 수도권 과밀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되었다. 즉, 수도권 정비 계획은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이후에 시행되었다.

22. 고위평탄면은 비슷한 위도의 저지대에 비해 무상 기간이 짧다.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무상 기간이 짧다.

23. 평창은 홍천에 비해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이 넓다.

24. 삼척은 강릉에 비해 석회석 생산량이 적다. (지엽)

삼척은 강릉에 비해 석회석 생산량이 많다.

## 16. 충청·호남·영남 지방과 제주특별자치도

1. 충청 지방은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연결해주는 곳에 위치해있다.

2. 대전과 청주는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다.

대전과 청주는 첨단 지식 산업이 발달해있다. 아산이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있다.

3. 김제는 나비 축제, 함평은 지평선 축제가 유명하다.

김제는 지평선 축제, 함평은 나비 축제가 유명하다.

4. 신안 증도, 완도 청산도, 담양은 슬로 시티로 지정되어있다.

5. 낙동강 중·상류에 삼각주가 발달해있다.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발달해있다.

6.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높다.

7.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종 모양 화산이나 산 정상은 방패 모양 화산이다,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방패 모양 화산이나 산정부는 종 모양 화산이다.

8. 충청 지방의 아산은 전자 산업과 자동차 공업, 서산은 석유 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9. 영남 지방의 포항은 대구와 달리 섬유 공업이 발달하였다.

대구: 자동차, 기계, 섬유 제조업

포항: 제철 제조업

10. 전주 한옥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주 한옥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11. 천안은 기업도시로 지정되었다.

충청 지방에서 기업 도시로 지정된 것은 태안과 충주이다. (혁신도시: 진천, 음성)

12. 전남에서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

13. 경북에서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자동차 산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경북에서 출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전자 관련 산업이다.

14. 군산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남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은 울진, 경주, 부산, 영광이다.

15. 창녕에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할 수 있다.

16. 울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가 환경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유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울진이 아닌 경주이다.

17.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인해 제주도의 농경지가 대부분 밭으로 이용된다.

18.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등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9.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지형이다.

## 18. 지역 격차와 지속 가능한 발전

1.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되었다.

2.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한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채택한다.

3. 균형 개발 방식은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주로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진다.

4. 불균형 개발 방식은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한다.

5. 1980년대에 지방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서해안 지역을 개발했다.

1990년대에 지방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며 서해안 지역을 개발했다.

6. 우리나라의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 수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엽)

전체 사업수의 약 4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엽)

7. 강원 원주시는 제주 서귀포시와 달리 혁신 도시로 선정 되었다.

둘 다 혁신 도시로 선정 되었다.

8. 혁신 도시란 기업과 협력 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교육·의료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위 설명은 기업 도시를 말하고 있다.

9. 현재, 2018 년은 제 2 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중이다.

현재는 제 3 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시행 중이다.

10. 균형 개발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1. 제 3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실시할 때,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였다.

12. 제 1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실시할 때,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 1 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실시되었다. (지업)

제 1 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제 1 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13. 1960 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5 년의 비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5 년 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므로 비수도권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감소하였다.

14. 1990 년대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이다.

## 실전모의고사 1 회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대동여지도이다.

2. 천하도와 대동여지도에는 모두 중화사상이 나타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천하도의 가운데에는 중국이 표현되어 있다.

3. 최종빙기 시기는 후빙기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낮다.

4. 최종빙기 시기 하천 상류부의 풍화 산물의 공급은 대부분 화학적 풍화 작용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최종 빙기에는 물리적 풍화 작용이 우세하였다.

5. 하상계수가 과거에 비해 작아진 이유 중 하나는 하천 상류의 댐 건설이다.

6. 자유곡류하천은 감입곡류하천보다 측방 침식 작용이 우세하다.

7. 갯벌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8. 석호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넓어진다.

석호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9. 인천, 울릉도, 거제의 연 강수량 순서: 울릉도>거제>인천

거제>울릉도>인천

10. 인천, 울릉도, 거제의 기온의 연교차 순서: 인천>거제>울릉도

11.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시적 확장으로 인해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12.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 영서 지방에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이 불어온다.

높새바람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관련이 적다.

13. 주로 8, 9월에 피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자연재해의 진행방향은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다.

14.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는 호우보다 대설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5. 도시체계는 도시 간 교통량으로 파악할 수 없다.

도시 체계는 도시 간 인적·물적 이동, 도시 간 교통량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16. 남동 임해 지역의 도시는 침상 도시의 성격이 나타난다.

남동 임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 공업 지역이다.

17. 서울의 도심은 주변지역에 비해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18. 제주에서 공급량 비중이 가장 높은 화석 에너지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19. 다른 도(道)에 비해 경기에서 공급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 에너지는 석유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다른 도에 비해 경기에서 공급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 에너지는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20. 1차 금속 제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

21. 자동차 제조업의 출하액 1위 지역은 섬유제품(의복 제외) 제조업 출하액도 1위이다. (도(道) 별)

22. 철도는 도로보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다.

23. 국내 화물 수송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교통수단(지하철 제외)은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국내 화물 수송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교통수단은 항공이다. 항공은 비교적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문전 연결성이 낮다.

24. 북한은 남한보다 1990년 광공업 생산액 비중이 높다.

25. 춘천 지역에서 수도권 전철 연결과 지역 경제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26.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소매 업체는 매출액도 가장 높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소매 업체는 무점포 소매업이다. 매출액이 가장 높은 소매 업체는 대형마트이다.

27.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중 재화의 도달 범위는 편의점이 가장 넓다.

백화점이 가장 넓다.

28. 호남 지방은 조차가 커서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29. 전주와 순천에 조성되어 있는 민속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주와 순천의 민속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회와 양동의 역사 마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30.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특징은 남동 연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 단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남동 연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 단지를 건설한 것은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주요 개발 내용이다.

31.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특징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1992~1999년에 시행되었다. 원주, 태안 등이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로 지정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 실전모의고사 2 회

1. 우리나라에서 하굿둑이 설치된 하천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다.

2. 독도와 달리 마라도는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마라도와 독도는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3.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동쪽이 서쪽보다 이르다.

4. 택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택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택리지보다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었다.

택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관심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6. 고생대 초기의 퇴적암은 얕은 호수 밑에서 형성되었다.

고생대 초기의 퇴적암은 바다 밑에서 형성되었다.

7. 남해안의 적색토는 신생대의 화성암이 풍화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남해안의 적색토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성대 토양이다. 신생대의 화성암은 풍화

작용을 받으면 흑색 계통의 간대 토양이 만들어진다.

8. 하천의 하류 구간은 상류 구간보다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낮다.

하천의 하류 구간은 퇴적물의 평균 원마도가 비교적 높다.

9. 하천의 상류 구간은 하천의 하류보다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

하천 하류를 흐르는 자유 곡류 하천은 하방 침식보다 측방 침식이 활발하고 범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감입 곡류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

10. 침식 분지에서 화강암 분포 지역은 변성암 분포 지역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11. 사빈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갯벌은 사빈에 비해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며 해양의 정화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12. 갯벌은 사빈보다 지형 형성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3. 우리나라는 7 월보다 1 월에 대류성 강수의 발생 빈도가 높다.

대류성 강수는 강한 일사에 의해 발생하는 국지성 강수로 7 월이 1 월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14. 우리나라는 겨울에 기온의 남북 차가 크다.



15.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풍이 탁월하므로 북서풍의 바람받이 사면은 대체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다.

16.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는 남해안 지역과 한라산의 여름 바람받이 사면인 제주시,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 등이다.

한라산의 여름 바람받이 사면은 서귀포시이다.

17. 호우는 장마 전선이 장기간 머무를 때 발생 빈도가 높다.

18. 한파 발생 계절은 호우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계절보다 평균 풍속이 강하다.

19.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건물의 평균 층수가 많다.

20. 주변지역은 도심과 달리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도심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업 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21. 경남과 충남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

경남과 충남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석탄이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석유이다.

22.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 중 가장 수입 의존도가 높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는 천연가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화석 에너지는 석유이다.

23.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에 주로 입지한 발전 양식은 일조 시간이 긴 지역에 입지해야 에너지 생산에 유리하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발전 양식은 풍력 발전이다. 일조 시간이 긴 지역이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4. 경북, 전북, 전남에 주로 입지한 발전 양식은 수력 발전보다 상업적 이용 시기가 이른다.

경북, 전북, 전남에 주로 입지한 발전 양식은 태양광 발전이다. 수력 발전은 태양광 발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른다.

25.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26.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은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많다.

27.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마을 중 한 곳인 양동 마을이 있다.

양동 마을은 경주에 위치해 있다.

28. 창원은 울산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울산이 창원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29. 경기, 경북, 전남의 쌀 생산량: 전남>경북>경기

30. 경기, 경북, 전남의 농가 수: 전남>경북>경기

경북>전남>경기

31. 경기, 경북, 전남의 겸업농가 비중: 경북>경기>전남

경기>경북>전남

### 실전 모의고사 3 회

1. 영해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내수 안에서는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이 가능하다.

내수에서는 외국 선박의 어로 활동이 제한된다.

3. 제주도의 오름은 중생대에 관입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제주도의 오름은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4.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분포할 수 있다.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아니면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분포하지 않는다.

5. 최종빙기 시기는 후빙기 시기에 비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의 길이가 짧다.

최종 빙기에는 현재 황해와 남해의 대부분이 육지로 드러나 하천의 유로가 현재의 황해와 남해 위치까지 연장되었다.

6. 후빙기 시기는 최종빙기 시기에 비해 동해의 면적이 좁다.

후빙기에는 최종 빙기에 육지로 드러난 만큼 동해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7. 택리지는 가거지의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을 제시하였다.

8. 갯벌은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 넓게 형성된다.

갯벌은 조차가 큰 지역에서 넓게 형성된다.

9. 사주는 침식 작용보다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10. 무상 기간은 대체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 길다.

11. 부산은 춘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12. 호우는 중부 지방에서 연간 피해액이 많다.

13. 태풍은 바닷물의 온도를 높여 적조 현상을 심화시킨다.

태풍은 바닷물을 순환시켜 적조 현상을 완화한다.

14. 1차 에너지의 권역별 공급 비중 도표를 볼 때,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는 석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15. 호남권은 영남권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이다.

16. 서울의 도심 지역은 부도심 지역보다 출근 시간 대 순 유입 인구가 많을 것이다.

부도심 지역의 출근 시간 대 순 유입 인구가 더 많다.

17. 서울의 부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것이다.

18. 도시 체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부산의 동별 지가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체계는 도시 간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부산의 동별 지가 분포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19. 대도시권은 대도시와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공간적인 범위로 대체로 통근 가능권과 일치한다.

20. 울산, 전남, 충남의 출하액이 많은 제조업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계열화된 조립형 공업이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이지만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은 아니다.

21. 전자 부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출하액이 가장 많다.

전자 제조업의 출하액과 자동차 제조업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이다.

22. 철도는 해운보다 단위 거리당 운송비 체감률이 크다.

단위 거리당 운송비 체감률: 해운>철도>도로

23. 해운은 도로보다 주행 거리당 운송 시간이 길다.

24. 제주는 경북보다 겸업농가 비율이 낮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가 겸업농가 비율이 경북보다 높다.

25. 전남은 경북보다 과실 생산량이 적다.

26.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소매 업체는 상점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상점 규모가 작으므로 상점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적다.

27.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소매 업체는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다.

28. 전남은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

전남의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50%를 넘는다.

29. 북한은 남한보다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이 많다.

북한은 남한보다 농업 기술과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이 낮다.

30. 옥수수는 쌀보다 논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쌀은 옥수수보다 논에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31. 충청권 지역 중(충북, 충남, 세종, 대전 中)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다.

32. 충청권 지역 중(충북, 충남, 세종, 대전 中)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이다.

충청권에서 인구와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이다.

## 실전모의고사 4 회

1. 백두산 정상부에서 대관령 일대까지 산줄기가 불연속적으로 뻗어 있다.

백두산에서 대관령까지는 하나의 큰 산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2. 백두산 위의 큰 못은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호수이다.

백두산 천지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3. 나리분지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4. 철원 용암대지의 기반암은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것이다.

5. 남한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한강,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은 낙동강이다.

남한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낙동강,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은 한강이다.

6.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하구에 하굿둑이 설치되어 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다.

7. 독도는 마라도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낮다.

독도가 더 높다.

8. 영종도와 마라도는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영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 아니다.

9. 마라도와 달리 독도는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독도와 마라도 둘 다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0.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이다.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은 해식애이다.

11. 석호의 물은 주로 주변 농경지에 농업 용수로 이용된다.

석호의 물은 민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 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12. 거제, 강릉, 대구의 연 강수량: 강릉>거제>대구

거제>강릉>대구

13. 거제, 강릉, 대구의 최난월 평균 기온: 대구>거제>강릉

14. 대동강 하류 지역은 지역과 풍향의 영향으로 다우지를 이룬다.

대동강 하류 지역은 높은 산지가 없고 저평하기 때문에 소우지를 이룬다.

15. 압록강은 성천강보다 유로가 길고 유역 면적이 넓다.

16.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석회 동굴은 영월군에 위치해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석회 동굴은 삼척시에 위치해있다.

17. 연천군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DMZ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엽)

연천군이 아닌 철원군이다.

18. 부산이 양평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므로 무상 기간이 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 충남, 경남, 전남 순으로 석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충남>전남>경남

20. LNG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道)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있다.

경기 지방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지 않다.

21. 인천은 서울보다 총인구 대비 2 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다.

22. 과수 재배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경북 순이다.

경북>제주

23. 맥류는 경기, 강원 등 중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한다.

맥류는 주로 남부 지방에서 재배한다.

24. 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25. 강원, 충북, 경기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태양광이 아닌 수력 에너지이다.

26. 철도는 도로보다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27. 주변지역은 부도심보다 출근 시간대의 순유입 인구가 많다.

출근 시 순 유입 인구는 부도심보다 주변지역이 적다.

28. 부도심은 중간 지역에 비해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29.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은 섬유제품(의복제외) 제조업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적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은 섬유 제품 제조업(의복 제외)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30. 섬유제품(의복제외) 제조업은 자동차 제조업보다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늦다.

1960년대 공업화를 주도한 제조업은 섬유 제품(의복 제외) 제조업이다.

31. 서울, 충남, 제주, 울산 중 2 차 산업 취업  
자 수 비중은 충남이 가장 높다.

울산이 가장 높다.

32. 충남은 제주보다 총인구가 많다.

17 강과 실전모의고사 5 회는 따로 선지를 추출  
하지 않았습니다.

17 강은 인구 관련 문제로, 시험에 나와 있는  
통계로 문제 풀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전모의고사 5 회는 선지를 추출하다보니 중복  
되는 선지가 많아서 제외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9 수능 한국지리 50 점 기원합니다.

파이팅 :D

